

유적지 순례 102

晦谷公 휘 春蘭, 藏谷公 泰一, 參巖公 希仁



△회곡 고택: 영양군 청기면 기포리 261, 경북민속자료 제79호(1988년 지정)



△세덕사(회곡공 사당): 영양군 청기면 기포리



△권춘란 과거급제 을과 제6인 (만력9년)



△춘란 문집: 매곡선생 행장, 진학도 등



△춘란 묘소: 안동시 외룡면 태동 사나산 선고묘 계하



△정곡공 태일선생 비루

공은 신령공 휘 직균(直均)의 5대손이고 병절교위 자관(自關)의 증손이며 증 좌승지 석충(錫忠)의 장자이다. 중종 34년 출생하여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문인으로 선조 3년 사마시(司馬試)하고 선조 6년 25세로 식년시 을과 급제하였다. 관직은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을 거쳐 수차의 외직을 맡았으며 안동에 낙향하여 있다가 선조 25년 임난시 59세로 김윤명의 의병에 가담하여 참의하였으... 선조 28년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으로 일을 맡고 선조 34년 62세에 청송부사에 부임하였다.

그후 사간원 사간 등 내직에 보하였으나 사양하고 서에(西厓) 류성룡(柳成龍) 등과 경학(經學)을 강구하는 학문에만 전념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다. 공은 후학을 많이 길러 추앙을 받았는데 선조가 경연(經筵)에서 "권 아무개가 벼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니 공이 학문에 전념한다고 하자 이를 장려하는 예치(齎旨)를 내렸다. 공은 가슴에 품은바가 많고 광활하여 산수를 사랑하였는데 더욱 정진하여 동구(洞口)의 임천(林泉)아래에 정자를 짓고 감원정(鑑源亭)이라 편액을 걸고 우유자적(優游自適)하면서 간간이 산동(山洞)을 왕래하며 류사에 등 제공과 강구(講究)하였다. 관직에 진소(徵召)하여도 사양하고 영천군수에 보하였으나 부임치 않았다. 그러면서 양공(養工)하기를 30년이나 류성룡이 공을 일컬어 "나의 노우가 천리(錢履)한 공부를 내 능히 미칠 수 없다" 하였다.

회곡진학도(晦谷進學圖)와 공문언인록(孔門言仁錄)을 저술하였으며 유고로 회곡집(晦谷集)이 있다.

광해 9년 졸하니 수 79세다. 사후에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추증되고 사림의 발의로 안동의 주계서원(周溪書院)에 배향되었으며 그 사적이 선조실록과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 증보 문헌비고 등에 등재되어 있다.

묘소는 안동시 외룡면 태동 사나산의 선고묘 계하에 있으며 묘지명은 처음 김상헌(金尙憲)이 썼다. 후사가 없어 아우 춘계(春啓)의 장자를 계자로 삼으니 형조참판 태일(泰一)이다. 공은 수령으로 있을 때 민심을 바꾸고 풍속을 우선하여 매월 초하루에 양로예(養老禮)를 행하고 흥년을 만나 창고를 열어 구제하니 살아남은 자가 많았는데 추수기에 목록을 붙여 "만약 공사로 견책을 당할 때는 내가 책임지리라" 하였다. 임술(1622년) 여러 선비가 모여 선생을 백담(柏潭)의 사우에 배식토록 모의하였으니 용산서원(龍山書院)이다.

회곡고택은 경북민속자료 제79호(1988년)에 경북 영양군 청기면 기포동 261번지에 있다. "권춘란은 1539년 안동군 기포리에서 출생하여 사간원 정언, 홍문관 교리, 사헌부 집의 겸 세자시강원보좌, 춘추관 편수관을 역임하고 임란에 의병에 가담하였으며 학문에 전념하고 말년에 사수를 따라 기포동에 우거하여 그 후손들이 기포동에 세거하게 되었다" 하였다.

퇴계선생을 찾아 갔을 때 선생이 입설인(立雪人) 권춘란이라 하였다.

다음은 대동기문(大東奇聞)에 실린 공의 사적이다. 입설(立雪)이란 정문입설(程門立雪)에서 온 말로 유좌(遊坐)와 양시(揚時)정이(程頤)를 찾아보니 명목(曠目)하고 있으므로 시립하고 있다가 물러가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문밖에 눈이 한자나 쌓였던 고사에서 제자가 스승을 받들이 지극함을 이른다. 또 대동기문(大東奇聞)에 공의 용모는 백석(白石)하기가 빙호(氷蠶-일음항이라 치며 깨끗하고 맑음)와 같았고 통틀어 맑았다. 어려서 향학의 뜻을 품고 부친과 효경(孝經), 주역(周易) 등 문답이 오갔으며 매 일과를 문적에 썼다고 하였다.

공은 퇴계에게 배우기를 청했는데 퇴계가 그 이름을 익히 알고 신중히 대하여다. 공이 고전에 잠심(潛心)하여 육경(六經)과 사자(四子), 구류(九流), 백가(百家)의 서적에 이르기까지 달하였으며 주역(周易)은 항상 머리에 놓고 드러내지 않으니 남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어버이 삼십이 자상하고 도타랐다.

공의 유적인 감원정(鑑源亭)은 세덕사(世德祠)로 되어 후손들이 증소로 되어 왔는데 현재 외룡면 태동 옛터가 황폐되어 후손들이 후손 복거(卜居)하던 영양 기포로 이전하여 보존한 내력을 후손 인환(仁煥)이 감원지라고 썼다.

25세(世) 장곡공(藏谷公) 태일(泰一)

공은 춘란(春蘭)의 계자로 선조 2년 출생하여 백담 구봉령(具鳳嶺)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선조 24년 사마시하였으며 선조 25년 임난에 장인인 김성일(金誠一) 휘하에서 서기(書記)를 맡고 대책에 계책을 내놓은바 컸다. 공은 선조 32년 별시문과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를 거쳐 이조참의(吏曹參議)와 대사간(大司諫)을 지냈으며 경주, 의주 등 삼부윤을 거쳐 전라감사(全羅監司)를 지내고 형조참판(刑曹參判)을 지냈다.

김상헌(金尙憲)이 지은 신도비명에 "공은 10세에 성인과 같고 시구에는 자신을 경계하는 것이 많았다.

백담선생에게서 수학하는데 총명하고 영오(穎悟)하여 범인을 초월하였다. 23세에 진사시하고 고을에서 문서를 작성하는데 중국인이 관려되어 서애가 공의 글을 채택하고 극찬하니 그 소리가 널리 퍼졌다. 영덕현령으로 보임되니 4년 거둬 풍년을 맞으니 상은 어의를 내리고 홍문관 교리를 내렸으나 병으로 사직하였다. 다시 사헌부 집의 홍문관 정자를 지내고 선조가 승하하자 국장도감의 도랑청(都郞廳)으로 국장을 맡아 통정대부부 풍기군수로 전보하였다. 후에 경주부윤으로 나갔는데 경주는 탐관오리들이 있어 학정(虐政)에 백성들이 시달리고 있었다. 공은 공물을 중지하고 부모(父老)를 존경하며 백성의 교화에 힘쓰며 향중의 자제들을 모아 강독(講讀)을 진작시켰다.

다시 임조하여 호조참의가 되었다. 어버이 봉양을 위해 외직을 원하니 영해부사로 나갔다. 부친상을 마치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제수되었는데 사환(仕宦)의 뜻이 없었다. 인조가 즉위하자 좌승지로 제수되고 노모 봉양을 위해 전주부윤으로 나갔다. 백성을 다스림을 경주에서와 같이 하니 백성들

이 편안하였다. 또 충주목사로 나갔는데 역도(逆徒)들을 잡는데 지혜로 체포하고도 자신의 공으로 삼지 않으니 상이 1계 특승하여 전라도 관찰사에 보임시켰다. 이어 대사간(大司諫), 형조참판(刑曹參判)이 되었다."

인조 6년에는 유효립의 역모를 다스리는데 힘써 영사원종1 등공신의 녹훈을 받고 인조 9년 평안북도 철산 앞바다 가도(假島)에 파견되어 명나라 황 도독(都督)을 잡반하고 모반자 모문룡군의 전리품을 노획하는 공을 세우고 귀로에 정주(定州)에서 병을 얻어 졸하니 수 63세였다. 임금이 진도하며 "힘난한 곳에 보내 공로있는 신하를 잃었도다"하고 호상으로 치제(致祭)케 하였다. 묘소는 안동시 외룡면 태동 사나산의 선고묘 오른쪽에 장례하였다. 처음 김상헌(金尙憲)이 신도비문을 찬하였다.

안동의 니산사(尼山祠)에 배향되고 인조실록과 국조인물고에 등재되었다. 장곡집(藏谷集)을 남겼다. 공은 아들 4형제를 두었으나 일찍 죽어 생가 종제인 태정(泰精)의 3자 통덕랑 세후(世後)를 계자로 삼았다. 공은 자음이 단정응중(端正凝重)하고 은후하여 학문이 은축(蘊蓄)하였으나 부족한 것 같이 하였다. 노복에도 법도가 있었고 타인파도 정명(精明)하였다. 아이들이 주연을 베풀고 강권하였으나 거절하면서 "선비는 대지(大志)를 세우되 외물(外物)에 동요되고 함익(陰翳)되기 쉬운데 항상 분발하고 높이 운소(雲霄)위에 있어야 한다." 하였다.

가도사건은 철산 앞의 가도를 중심으로 명(明), 후금(後金), 조선(朝鮮) 3국 사이에 벌어진 사건으로 광해군 13년 청태종이 요양을 함락시키자 명(明)의 요동도사 모문룡이 쫓겨 가도로 들어갔다. 인조 5년 청태종이 가도를 습격하였는데 모문룡이 조선에서 약탈을 자행하였다. 명(明)은 인조 7년 여순의 상도로 모를 유인하여 죽이고 새 도독을 파견하였는데 이때 공이 집반으로 파견되었다.

족회서(族會序) 번역문

안동권씨는 실로 태사공의 시조이다. 역사가 오래되고 후손이 많이 번성하여 관료로 출세한 분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훌륭한 씨족을 말할 때는 반드시 우리 성을 이 시대의 韋氏杜氏같은 명문으로 일컬었다.

우리 元節께서는 나라가 위급한 시대에 중책을 지고 남쪽지방을 평정하시어 국가에 충의로 보답하시고 조상의 음덕이 크다는 것을 유념하시어 태사공 묘소에 제사를 올렸으니 만역 3월 청명절이다. -중략- 이때에 원사공께서 술잔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모임은 가히 성대하다 하시고 나 태일(泰一)에게 기록하게 하시니 "아! 한분의 자손이 천명 만명이 되었고 그 자손들은 친소와 원근이 있는 것과 친하고 가까운 사이는 필연적인 일이다. 즐거운 일이니 슬픈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위로하면서 자주 모이고 친하게 사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소원한 족친 사이는 이름도 몰라서 타성과 다를 바 없는 이가 많아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宗法을 중시하였고 현재 사람들은 族會라고 하면서 그러한 폐단을 막으려 한 것이다. -중략- 한 형제 같이 흡족하면서 한 당내같이 즐기고 각 파가 모였지만 원근 친소의 구별이 없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인가. 다음에도 오늘과 같은 모임을 지키면서 조상을 추모하는 마음이 백대를 지나도 끊이지 않고 돈독의 정의를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는 남과 같이 대하는 일이 없도록 각자가 노력할 일이다." 1599년 3월 도원수 권율이 죽음을 모아서 묘에 제사를 올리고 잇달아 죽회를 열고 권태일을 명하여 그 일을 서술하였다. (權奇甲 번역)

전(腆)의 5대손 삼암공(參巖公) 희인(希仁)

공은 회곡공 을균(乙均)의 6대손이고 전(腆)의 5대손으로 증조부는 형조참의 예형(禮衡)이고, 조부는 참봉 전(鈐)이며 어모장군 언균(彦均)의 아들로 명종 13년 안동 풍산 오미리에서 출생하였다. 5세에 글을 배웠는데 모두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공은 책을 읽는 틈에 산기슭에 있는 큰 돌 2개를 집뒤에 옮겼다가 새벽에 제자리에 갖다 놓고 하였는데 이는 몸을 단련키 위함이었다. 한사람이 대들보에 박힌 대목을 뽑을 수 있는가 하니 뽑았으며 손으로 다른 곳에 박으니 대들보가 뺄개졌다. 호가 삼암(參巖)인데 19세가 되어 서애 유성룡의 문인으로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더니 선조 28년 22세에 무과급제하였다. 임난이 일어 선조 24년 서천포 만호(萬戶)가 되어 부임하였다.

공은 아들에게 글을 보내 당부하기를 "나라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너는 아미와 함께 소백산성에 들어가 조심하여 지내라" 하고 의병을 이끌고 7월 진주성 싸움에 공을 세우니 절도사 김면(金弼)의 천거로 옥천군수로 나갔다. 종질 협(協)과 홀(惚) 하인을 데리고 북정산 아래를 지날 때 100 여명이 공의 충의에 감복하여 몸바치기로 맹세하고 따랐다. 유민(流民)을 정성껏 도와주어 고을 사람들이 분발하였다.

김시민이 공을 불러 호서 김목민 팔랑현을 지키게 하고 파절장(把截將)을 겸하게 하였다. 의병 수백을 이끌고 출전하여 적을 배어 포성이 내렸다. 진주에서 군관 변성호가 "어제 삼경에 독산을 지키는데 왜적 수천이 둘러앉아 모닥불을 피워 놓고 충을 시험하는데 장마에 화약이 젖어 작동이 안되는가 봅니다" 했다. 공은 무릎을 치며 "왜적의 무리를 쓸어버릴 기회는 바로 이때다." 곧 장정 수십명을 거느리고 독산현으로 달리는데 북후령을 넘어 적진에 이르니 새벽이 될 무렵 첩편을 휘두르며 질풍같이 돌격하니 단번에 수십명을 베었다. 의병의 사기가 충천하여 일당 백의 용맹을 발휘하고 왜장 오오하(阿素古)의 목을 베고 보도를 노획하니 살아 돌아간 왜적은 수명에 불과하였다.

1593년 10월4일 왜적 수천명이 발악적 공격을 하였다. 공은 별장 변성규, 총병 이응보 등으로 3째대로 나누어 대진시켰으나 변성규는 달아나고 적의 기세는 대단하니 두 조카에게 "내가 이 싸움에 앞서지 않으면 이응보 군사가 도망칠 것이니 죽

을 각으로 싸우겠다. 그동안 잘 싸웠으나 너희들에게는 노모가 있으니 봉양해야 하고 내 시신을 거두어야 한다"하고 말에 올라 돌격하니 비호 같아서 적의 시체가 쌓이고 피가 내를 이루었다. 왜적이 혼비 백산하여 달아나 무찌르니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그러나 무장을 풀고 돌아오는 길에 복병이 기습하니 공은 중흥무진 싸웠으나 적탄이 옆구리를 뚫어 말에서 떨어져서도 적을 베었다. 조카들과 이응보가 적과 싸우니 적이 도망쳤다.

이튿날 공은 탄환 맞은 상처에 독이 퍼지니 대오를 정리하고 북향배하고 제갈량의 출사미첩지구(出師未捷之句)(出師未捷身先死 長使英雄淚滿襟)를 암송하며 숨을 거두니 36세였다. 공의 웅천 싸움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두 조카가 함양의 죽두현에 임시 안치했다가 이듬해 풍산의 오미리 아미산으로 이장하였다. 묘소에 4년간 풀이 나지 않더니 적이 몰라간 뒤에야 풀이 살았다. 통정대부 병조참의에 증직되고 퇴암영모사(退巖永慕祠)에 배향되었다가 오미리 방계미 충효사(忠孝祠)에 배향되었다. 공은 문장에도 능하여 유고로 삼암유집(參巖遺集)을 남겼고 선조실록과 영남인물고에 사적이 실렸다.

25세 순절공 형(炯)

회곡공 을균의 6대손이고 이(臧)의 5대손 숙경(淑經)의 증손이며 응수(應壽)의 장남으로 명종 8년 출생하였다. 임난시 종제 희인(希仁)과 더불어 의병을 일으켜 그를 수종하며 분전하다가 이듬해 옥천의 전지에서 전사하였다. 묘소는 안동 대곡에 있다.

28세 감모재(感慕齋) 유(瑜)

옥천공(沃川公) 희인(希仁)의 증손으로 철종 2년 출생하였다. 천품이 맑고 행위가 근수하였는데 효성으로 추천되어 영월의 장릉잡방을 지내고 의금부(義禁府) 도사(都事), 통훈대부에 올라 과전현감을 지냈다.

고종 39년 통정대부가 되고 중추원 의관(議官)에 보임되었다. 65세에 졸하니 묘소는 안동시 외룡면 이하 지신원의 무지산 일봉의 선비묘 계하에 있다.

(자료제공: 권진량, 사진:권기억, 김수 권영목 고문, 편집:죽헌 권경석)



△태일 묘소: 안동시 외룡면 태동 사나산 선고묘 우측



△희인 묘소: 안동시 풍산읍 오미동 아미산



△희인 사우: 안동시 풍산읍



△희인 충효사: 안동시 풍산읍 오미동 방계미